

본문	막 2:1-12	제목	지붕을 뚫는 믿음
찬송		일시	2026. . . .
<p>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의 요구 사항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병고침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심하게 미워하는 대적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기적 위에 세워져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금방 사라질 수 있습니다.</p>			
<p>그런데 이 때 중풍병자를 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도 자리를 잡고 있어서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자 지붕으로 올라가 뜯고 구멍을 만들어 중풍병자를 눕힌 상을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중풍병자와 및 둘러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것이라는 인과응보 사상을 깨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자 이것을 듣던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p>			
<p>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중풍병자가 곧 일어나 상을 가지고 나가니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p>			
<p>1.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우선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p>			
<p>오늘 예수님을 보려고 뻘뻘이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무슨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또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복종의 복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저주는 질병과 실패와 같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2. 믿음의 사람은 매 순간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최선의 길을 찾습니다.</p>			
<p>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적어도 네 명 이상의 사람들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는 친분에 의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막상 와보니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들어갈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지붕을 생각해 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생각도 읽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p>			
<p>우리도 예수님께 나올 때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방법을 통해 못 만나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만나야 합니다. 한 번 해보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면 예수님을 평생 인격적으로 못 만날 수 있습니다.</p>			
<p>3.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p>			
<p>예수님께서 네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대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서기관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지 그렇지 않은지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p>			
<p>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보다 말씀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더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믿음을 낳습니다. 순종하다보면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지붕도 뚫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p>			
<p><적용></p>			
<p><기도></p>			